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71차 CATI조사

제86차 ARS조사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CATI	33.1	35.1	22.9	9.0
	ARS	29.7	38.8	25.5	6.0
		진보	중도	보수	잘 모름

CATI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성별			지역	
표본크기	1,001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1	100.0%	1,001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503	50.2	495	49.5	0.98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29,999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9)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여성	498	49.8	506	50.5	1.01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5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18~29세	161	16.1	158	15.8	0.98					
응답률	13.1% [총 통화시도 7,667명]			30대	150	15.0	149	14.9	0.99					
조사기간	2024년 6월 14일 ~ 6월 15일(2일간)			40대	181	18.1	178	17.8	0.98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199	19.9	197	19.7	0.98					
				60대	170	17.0	173	17.3	1.01					
				70세 이상	140	14.0	146	14.6	1.04					
			지역	서울	186	18.6	188	18.8	1.01					
				인천·경기	322	32.2	321	32.1	0.99					
				대전·세종·충청	106	10.6	106	10.6	1.00					
				광주·전라	98	9.8	98	9.8	1.00					
				대구·경북	99	9.9	97	9.7	0.97					
				부산·울산·경남	146	14.6	149	14.9	1.02					
				강원·제주	44	4.4	42	4.2	0.95					

ARS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성별			지역	
표본크기	1,003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3	100.0%	1,003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536	53.4	496	49.5	0.92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여성	467	46.6	507	50.5	1.08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5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18~29세	118	11.8	159	15.9	1.34					
응답률	2.2% [총 통화시도 45,448명]			30대	134	13.4	149	14.9	1.11					
조사기간	2024년 6월 14일 ~ 6월 15일(2일간)			40대	190	18.9	178	17.7	0.93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214	21.3	197	19.6	0.92					
				60대	188	18.7	174	17.3	0.92					
				70세 이상	159	15.9	146	14.6	0.91					
			지역	서울	190	18.9	188	18.7	0.98					
				인천·경기	329	32.8	322	32.1	0.97					
				대전·세종·충청	105	10.5	106	10.6	1.00					
				광주·전라	102	10.2	98	9.8	0.96					
				대구·경북	97	9.7	98	9.8	1.01					
				부산·울산·경남	143	14.3	149	14.9	1.04					
				강원·제주	37	3.7	42	4.2	1.13					

성별

53.4%

남성

46.6%

여성

지역

18.9%

32.8%

10.5%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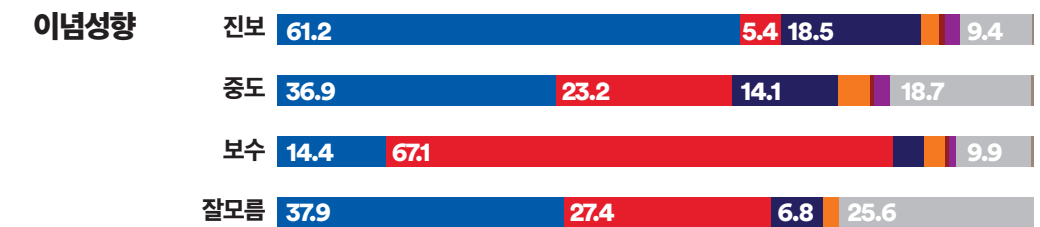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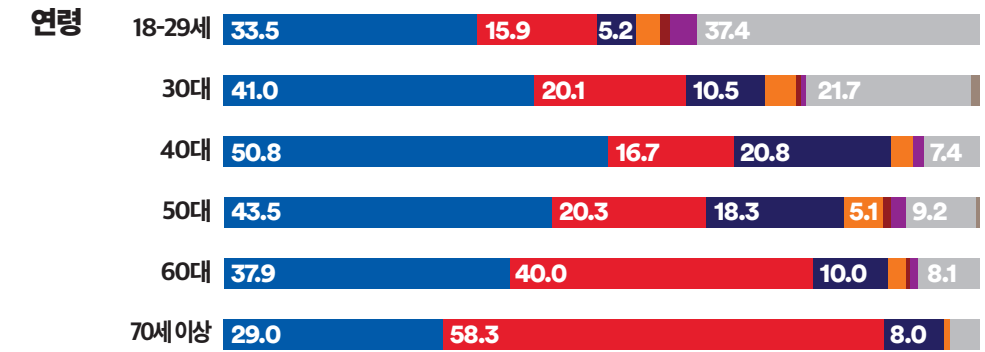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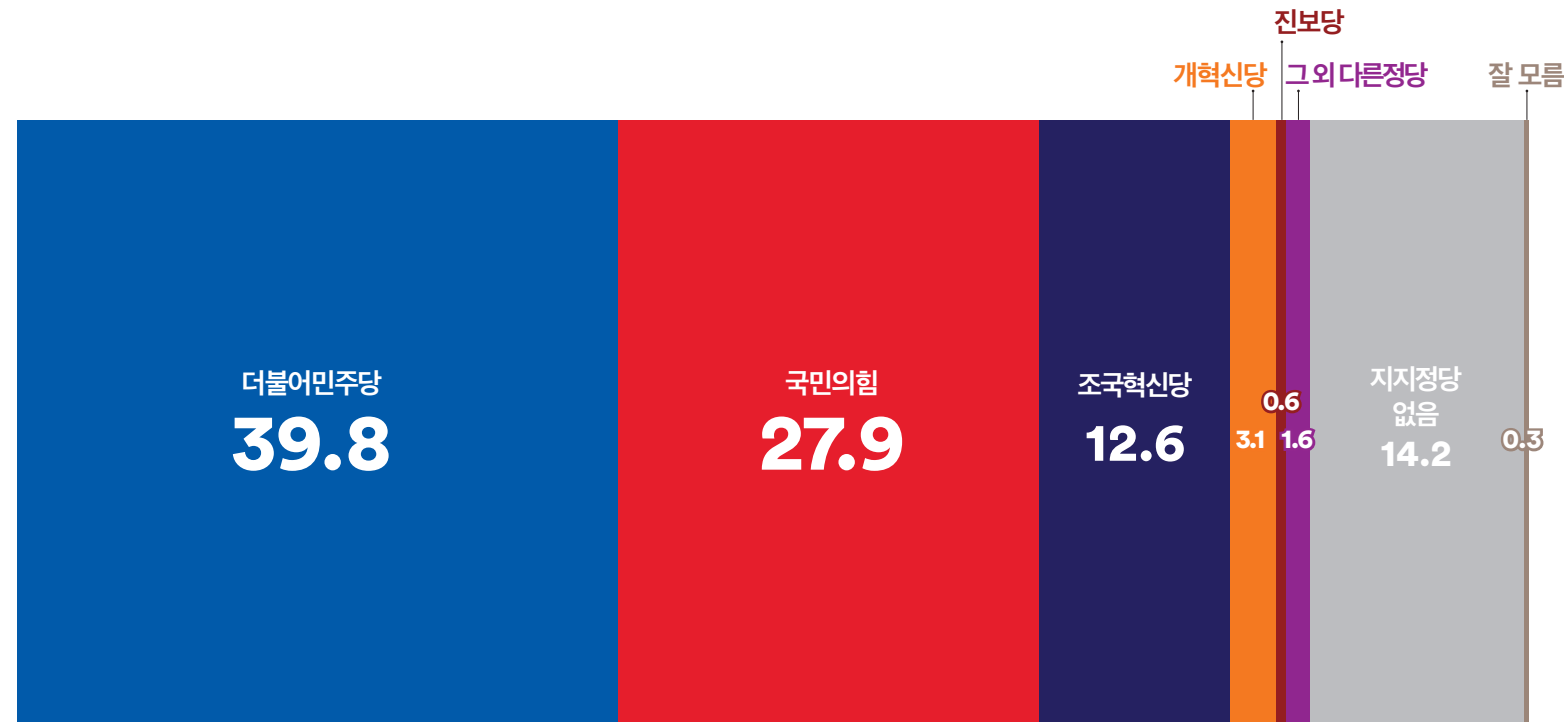
10.2%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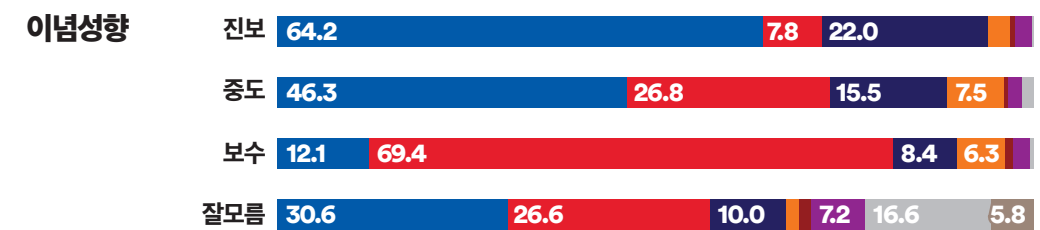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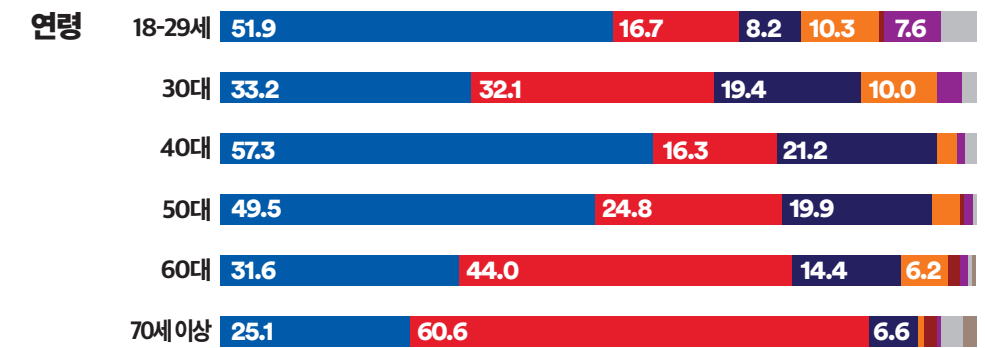
3.7%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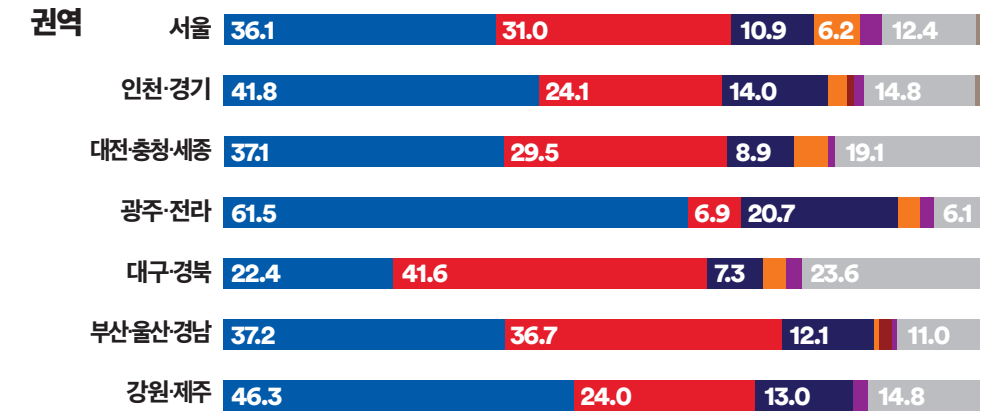


70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2% 하락, ‘국민의힘’ 0.5%p 하락, ‘조국혁신당’ 1.0%p 하락
 85차 ARS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8%p 상승, ‘국민의힘’ 0.3%p 하락, ‘조국혁신당’ 0.3%p 하락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간 격차는 11.9%p, ARS 10.6%p(지난주: CATI 11.6%p, ARS 7.5%p)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국민의힘’ 간 격차는 CATI 24.5%p, ARS 25.9%p(지난주: CATI 25.2%p, ARS 23.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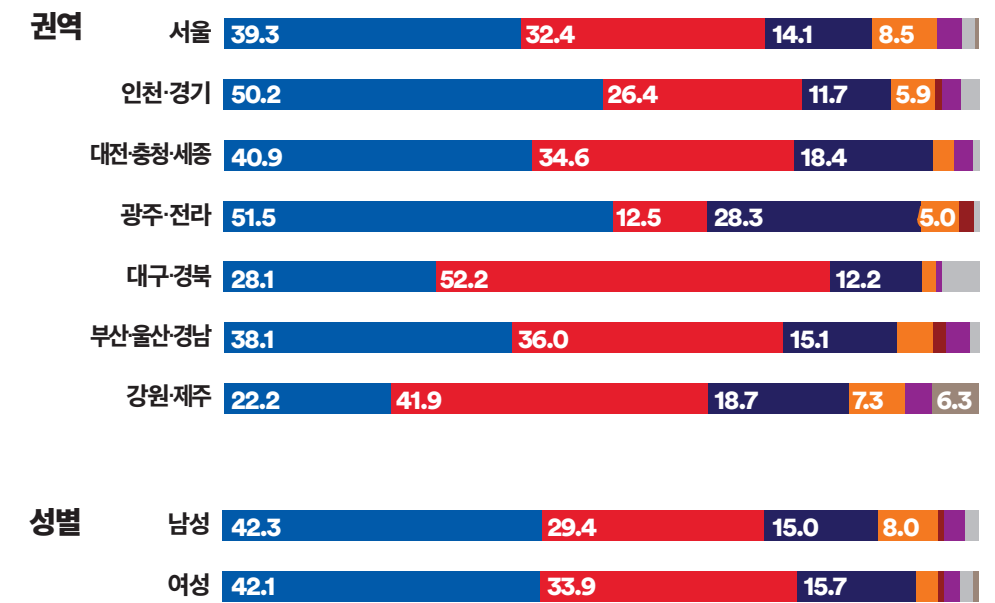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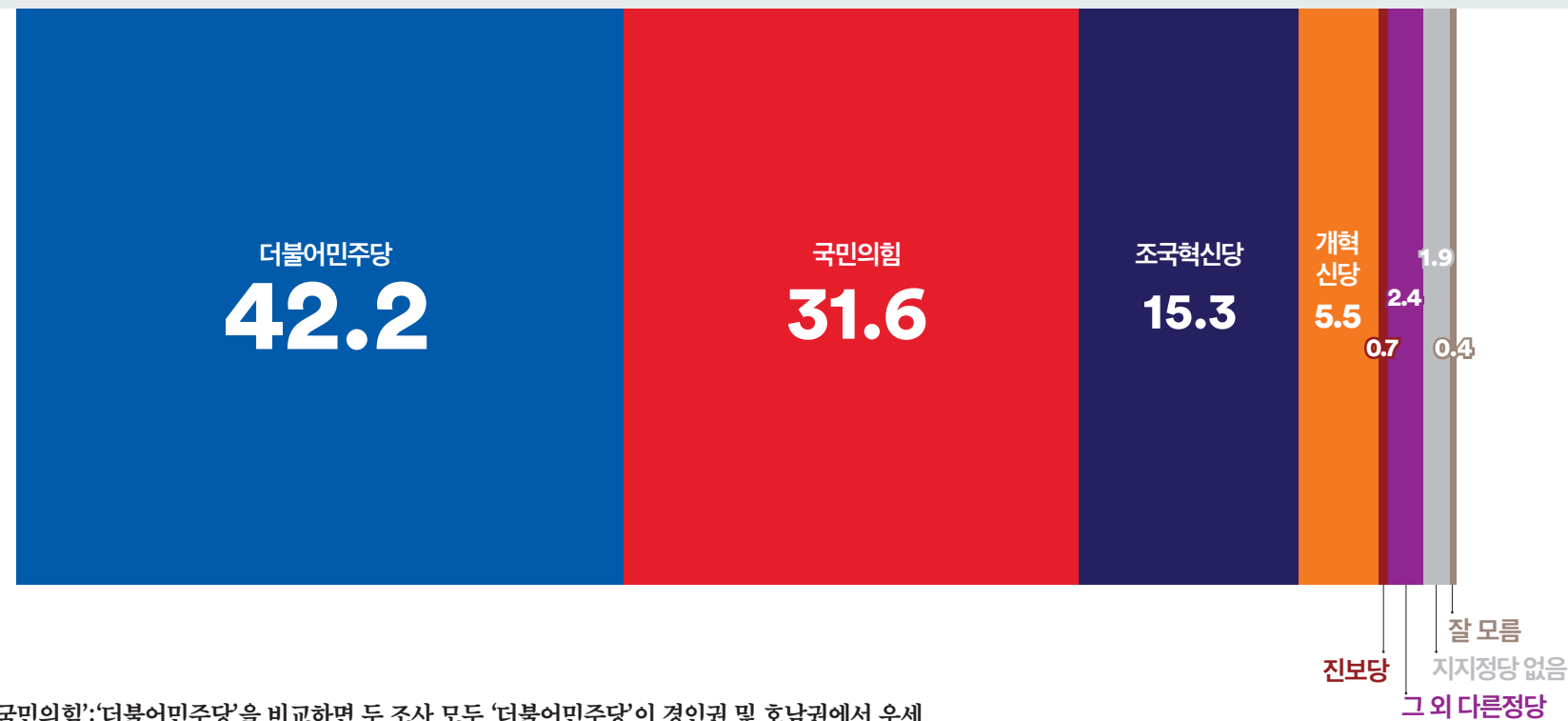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경인권 및 호남권에서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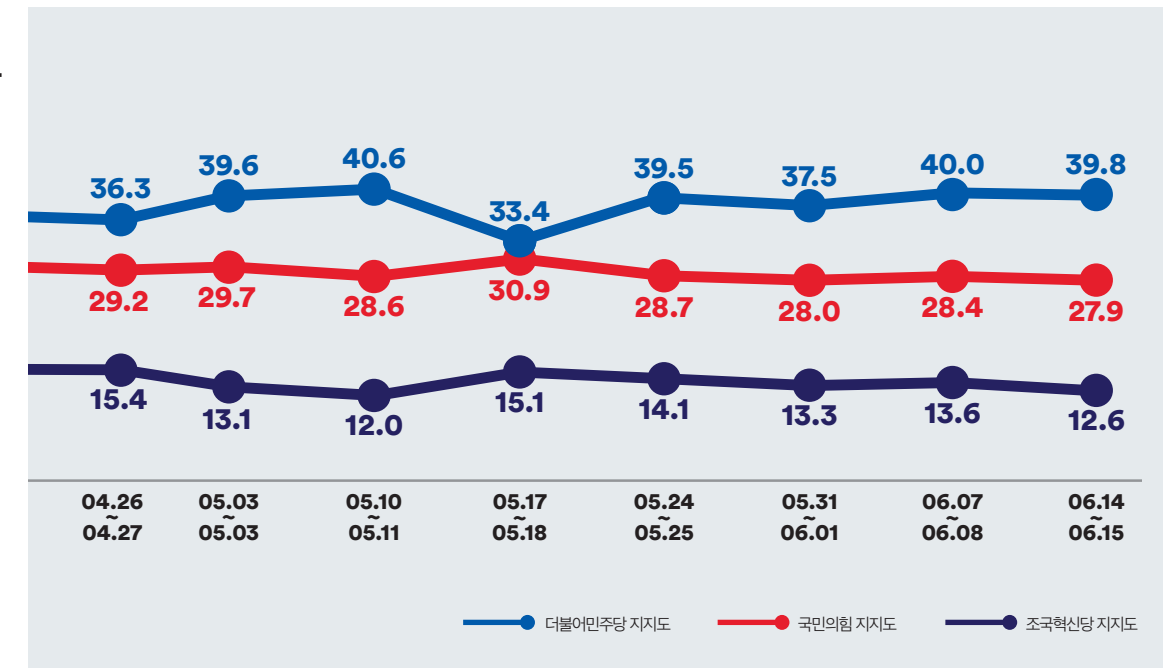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수도권 및 호남권(CATI 강원·제주, ARS 충청, PK 포함)에서 우세

TK권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회복되어 두 조사 모두 ‘더불어민주당’ 단독, 범야권 합산 지지율 대비 앞서고 ARS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비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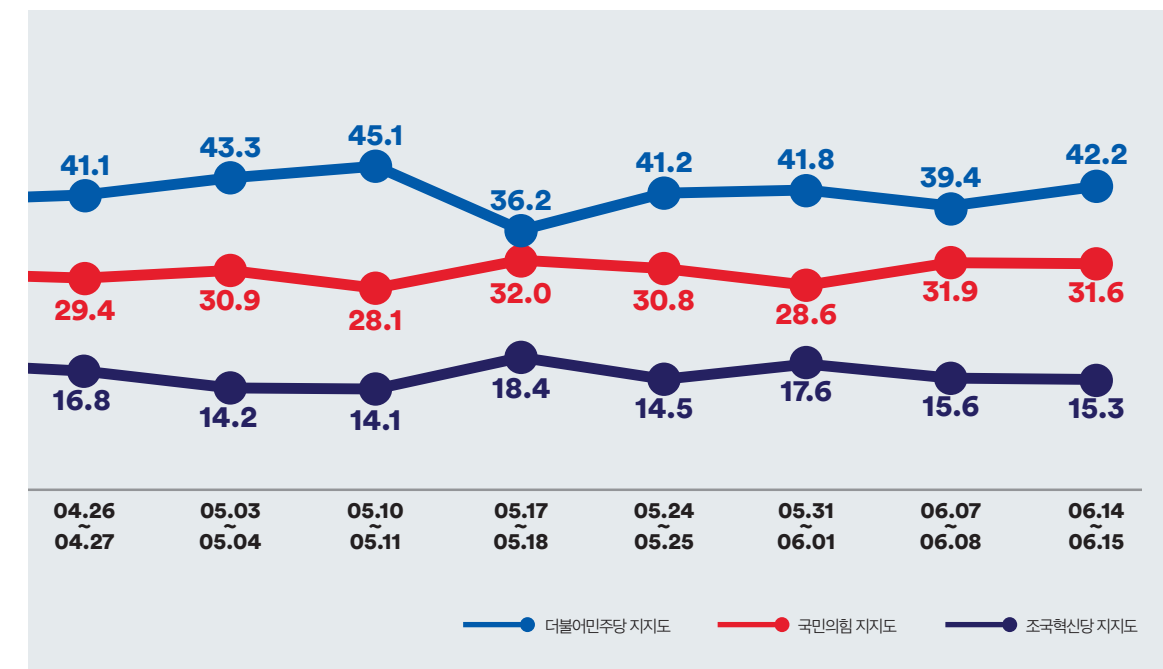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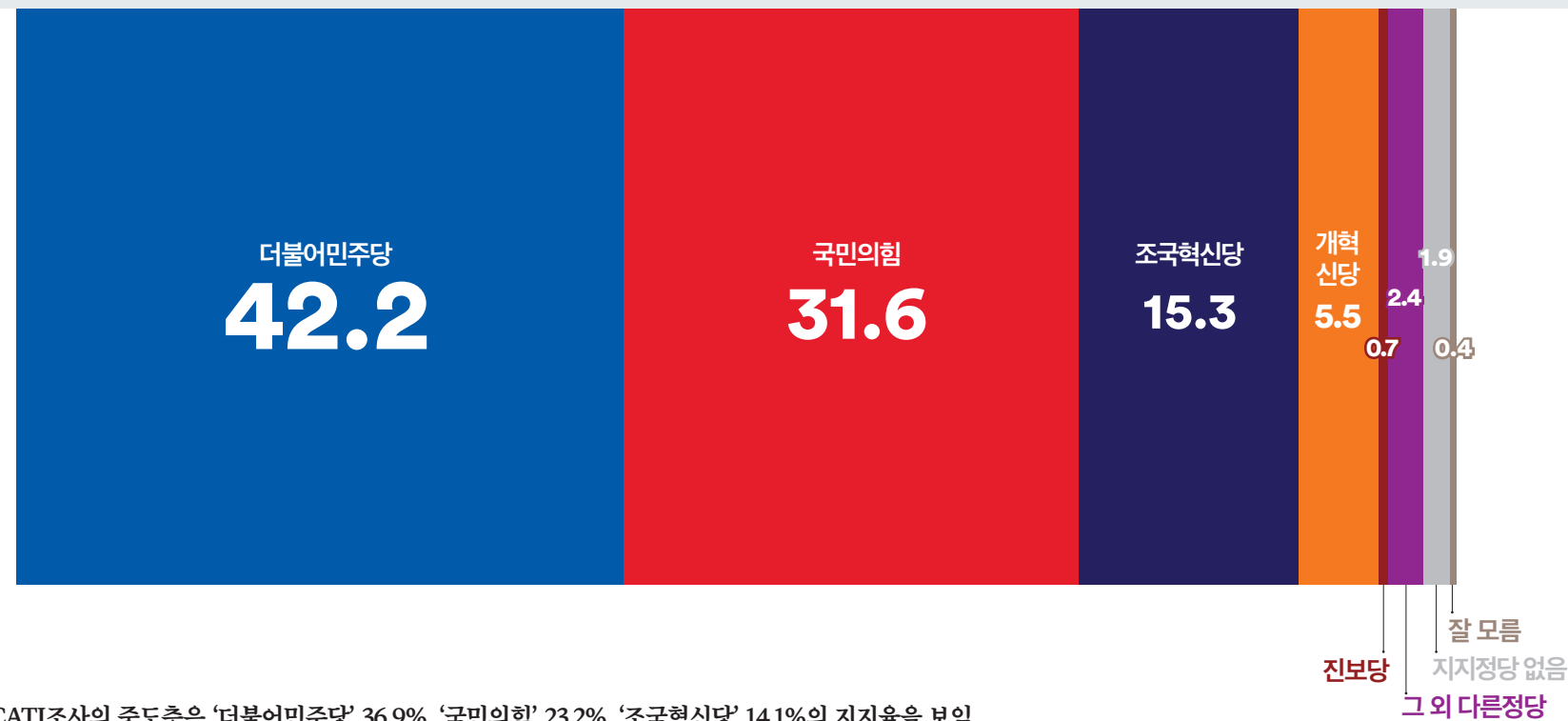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CATI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36.9%, '국민의힘' 23.2%, '조국혁신당' 14.1%의 지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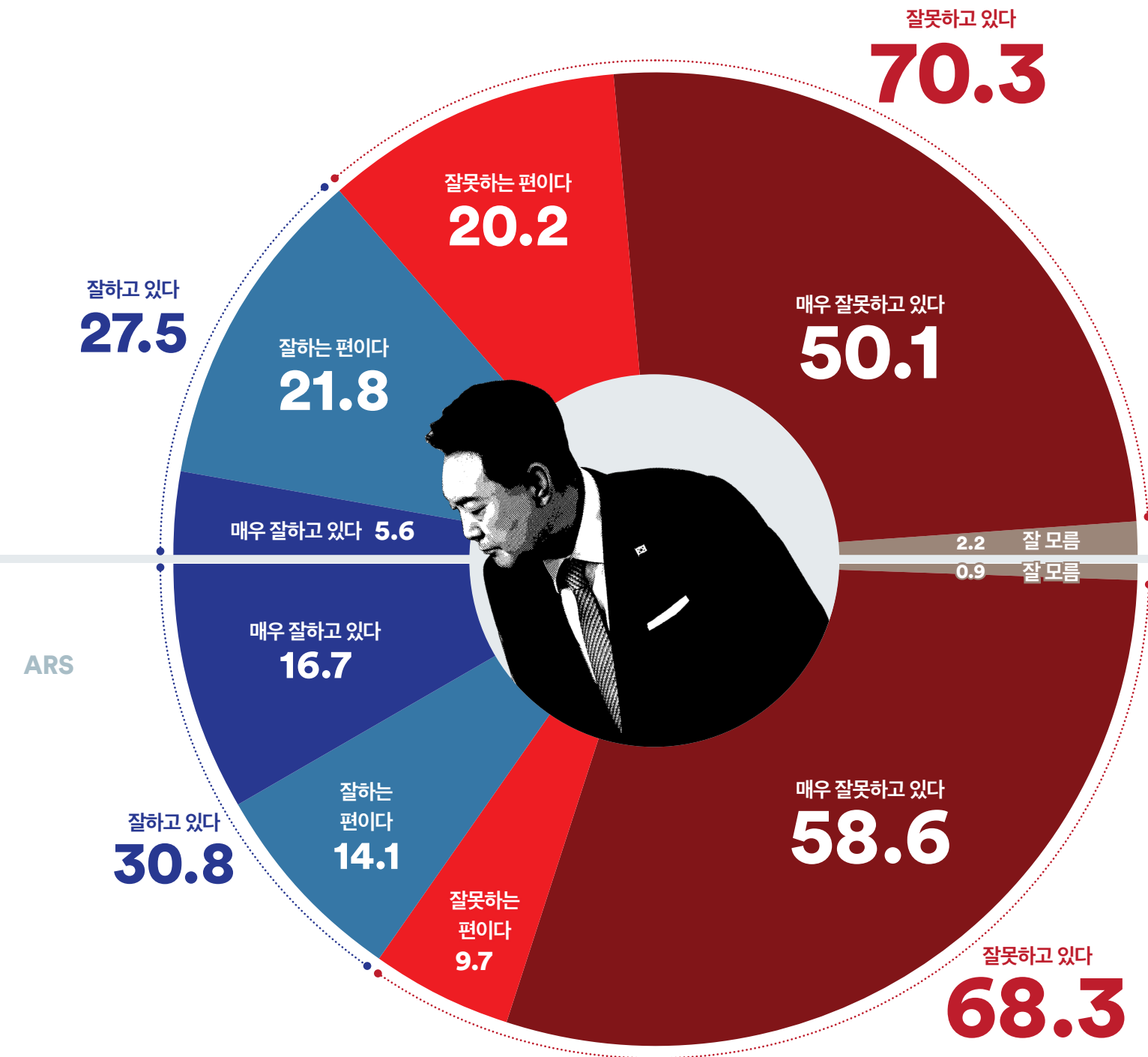
ARS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6.3%, '국민의힘' 26.8%, '조국혁신당' 15.5%의 지지율을 보임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CATI 27.8%p(70차: 34.1%p), ARS 35.0%p(85차: 23.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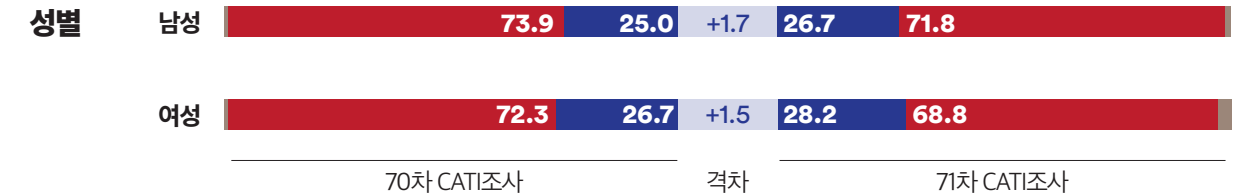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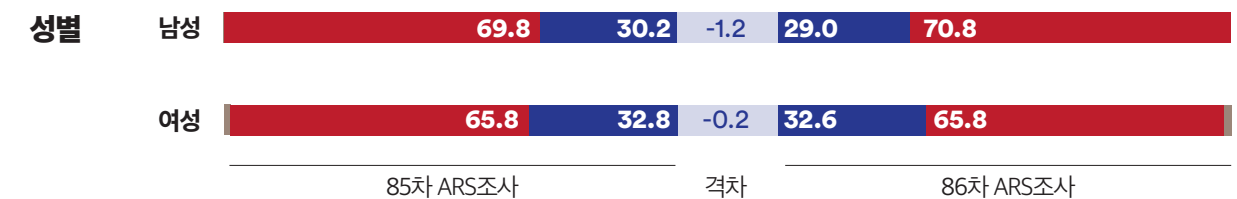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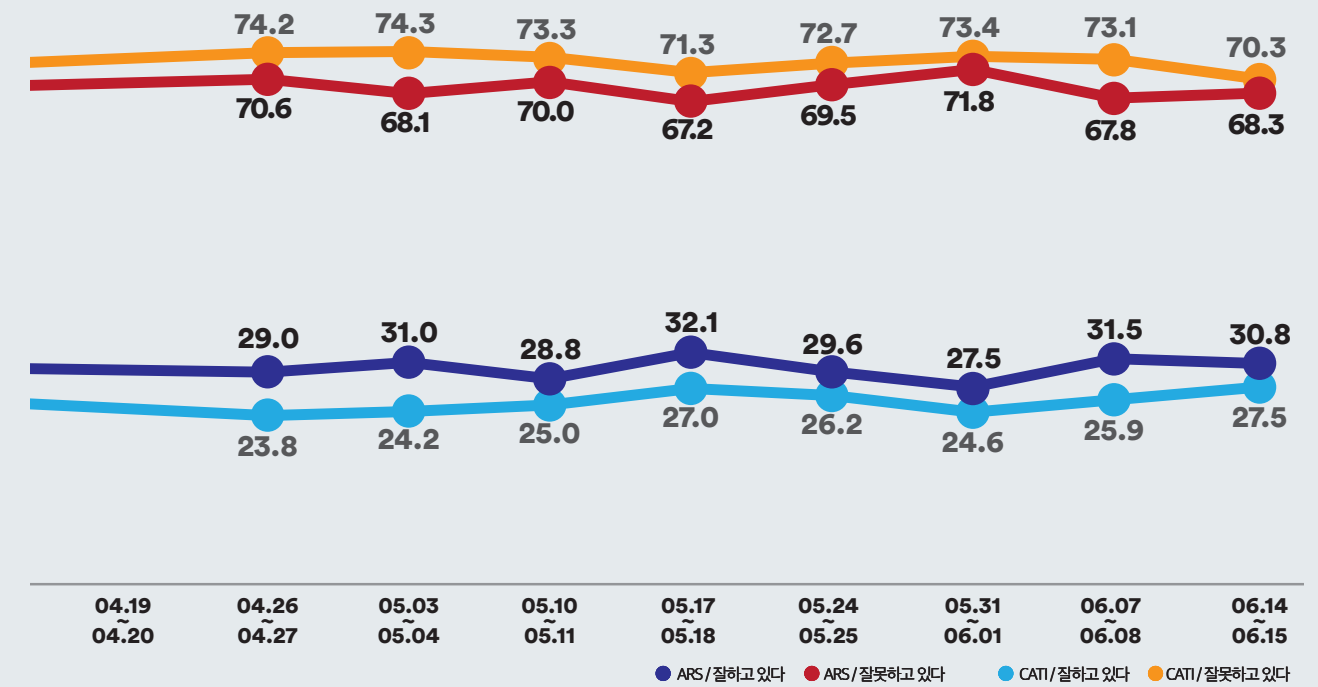
CATI



지난 70차 CATI조사 대비 '긍정' 평가 1.6%p 상승, '부정' 평가 2.8%p 하락(격차 42.8%p)
 지난 85차 ARS조사 대비 '긍정' 평가 0.7%p 하락, '부정' 평가 0.5%p 상승(격차 37.5%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남·녀 모두, 60대 이하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앞서거나 우세
 중도층의 평가 간 격차는 CATI 54.0%p(지난 조사: 58.7%p), ARS 48.0%p(지난 조사: 37.9%p)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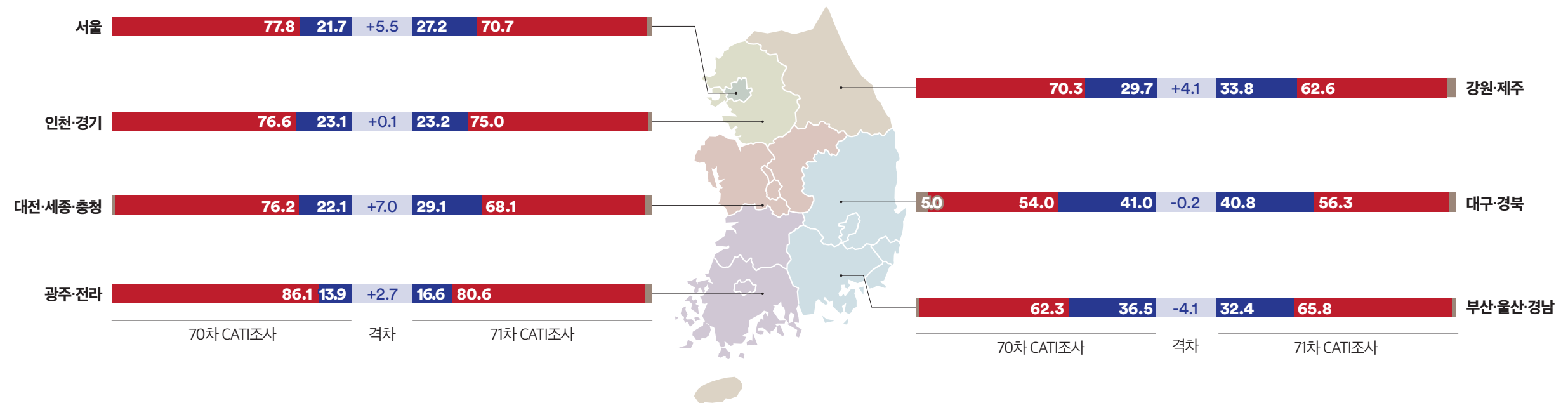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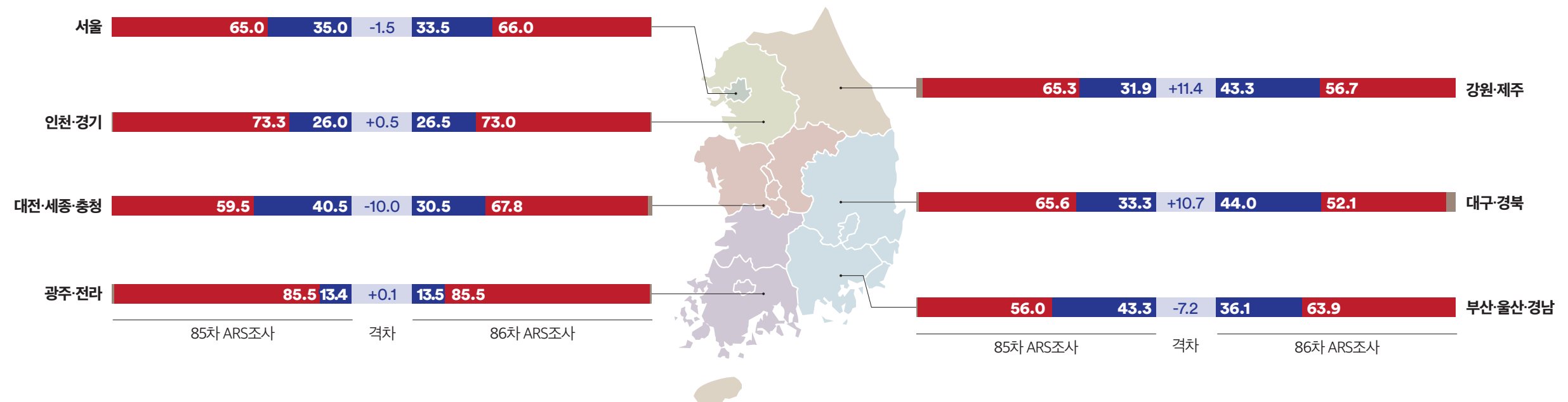
CATI

권역별



ARS

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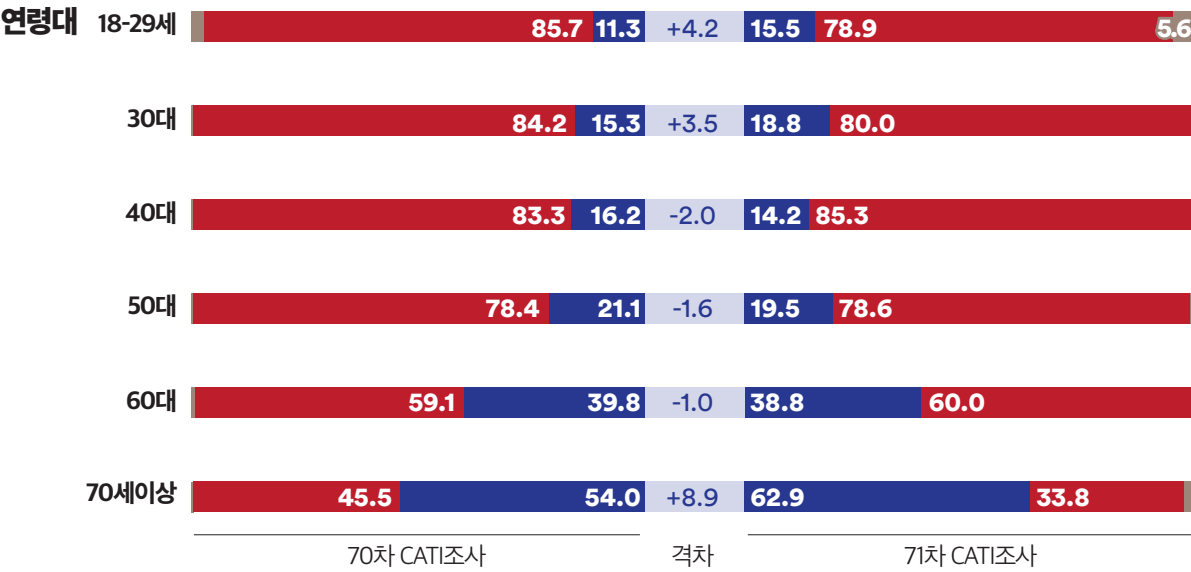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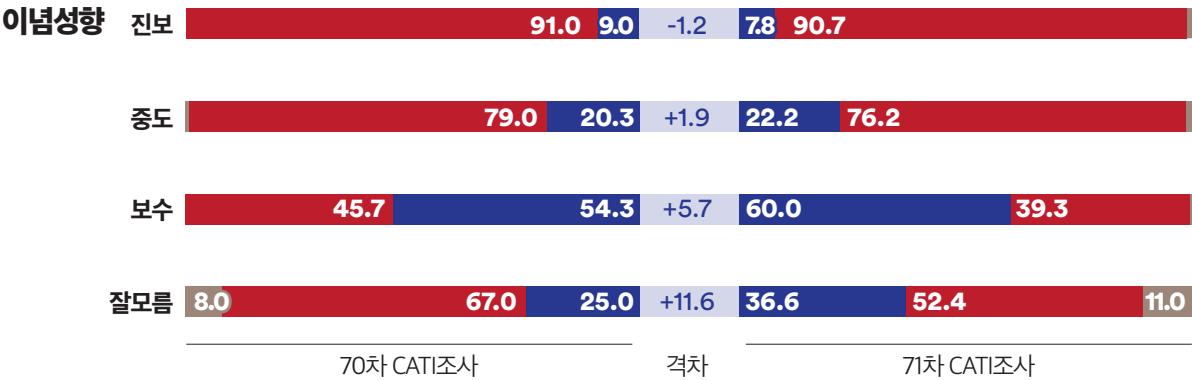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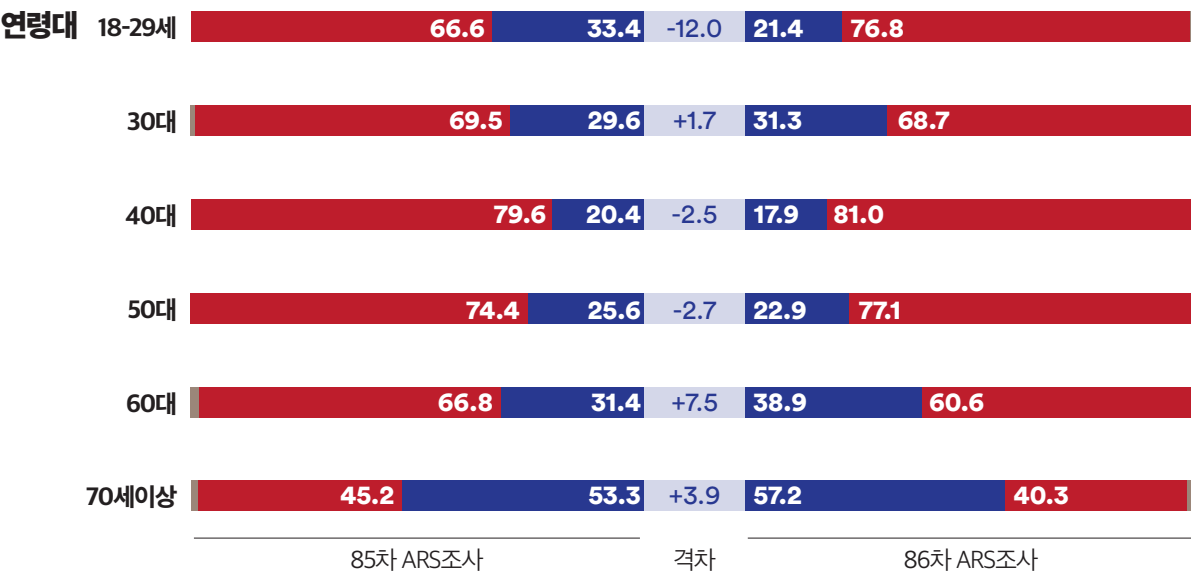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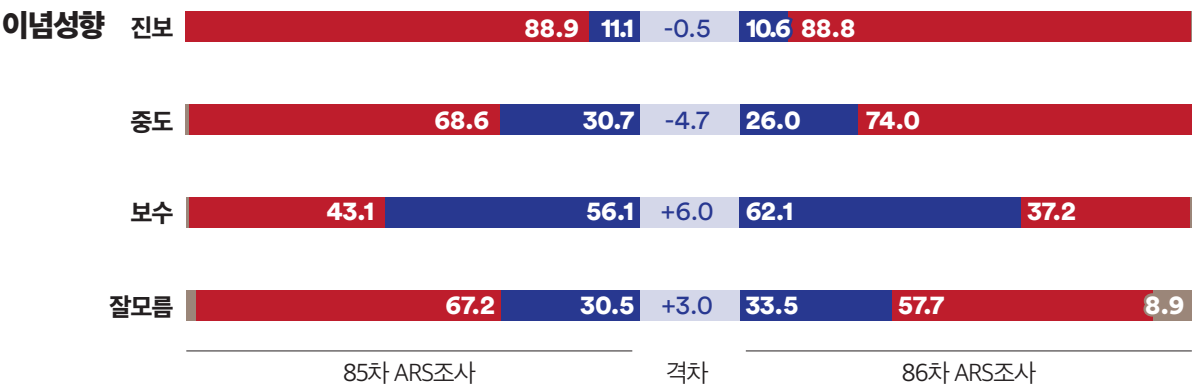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정부가 대북 활성기를 다시 가동하는데요, 이에 대한 다음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

CATI

“군은 그동안 운용하지 않았던 대북 심리전 풍선의 가동 상태를 유지해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실정을 알릴 준비를 완료하고, 다시 오물 풍선이 날아온다면 2배, 3배 북한으로 되돌려주길 바란다.”

[한기호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장, 기자회견 발언]

“대북 전단 살포를 오물 풍선으로 대응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활성화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6월 9일 브리핑 발언]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이므로
가동해야 한다

45.1

전쟁 위험을
가중시키므로
가동해서는 안된다

50.3

잘 모름
4.6

41.8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이므로
가동해야 한다

49.4

전쟁 위험을
가중시키므로
가동해서는 안된다

8.8

잘 모름

정부가 대북 활성기를 다시 가동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가동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CATI에서는 5.2%p, ARS에서는 7.6%p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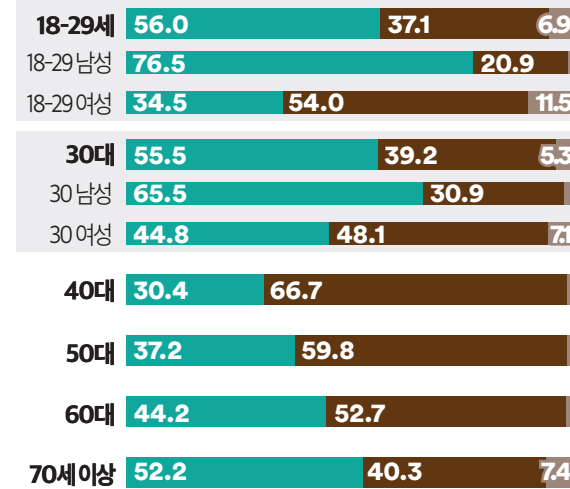
‘가동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경인권, 충청권, 호남권(CATI PK, ARS 서울 포함)에서 앞섬

40대·50대에서는 ‘가동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30대 이하 및 70세 이상에서는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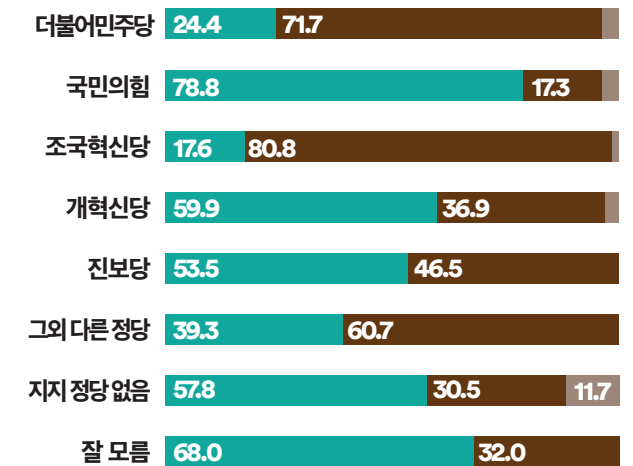
진보층 및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70%이상은 ‘가동해서는 안된다’고 응답

보수층 및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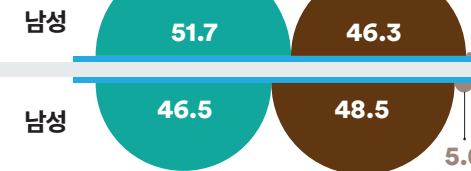
연령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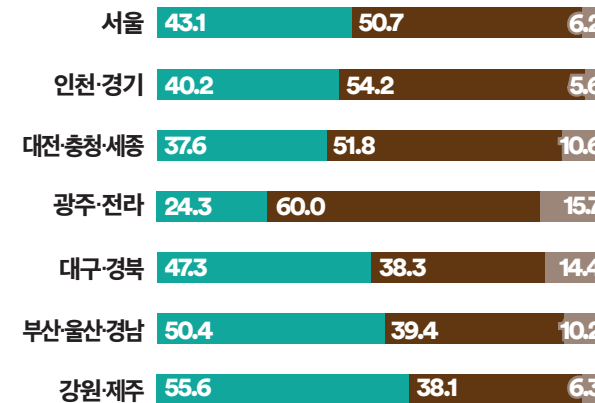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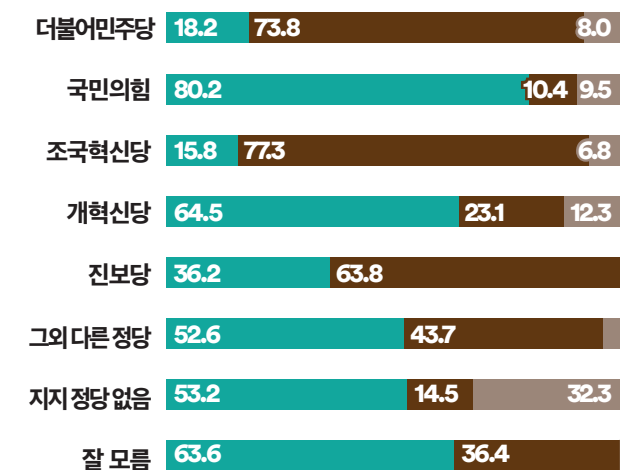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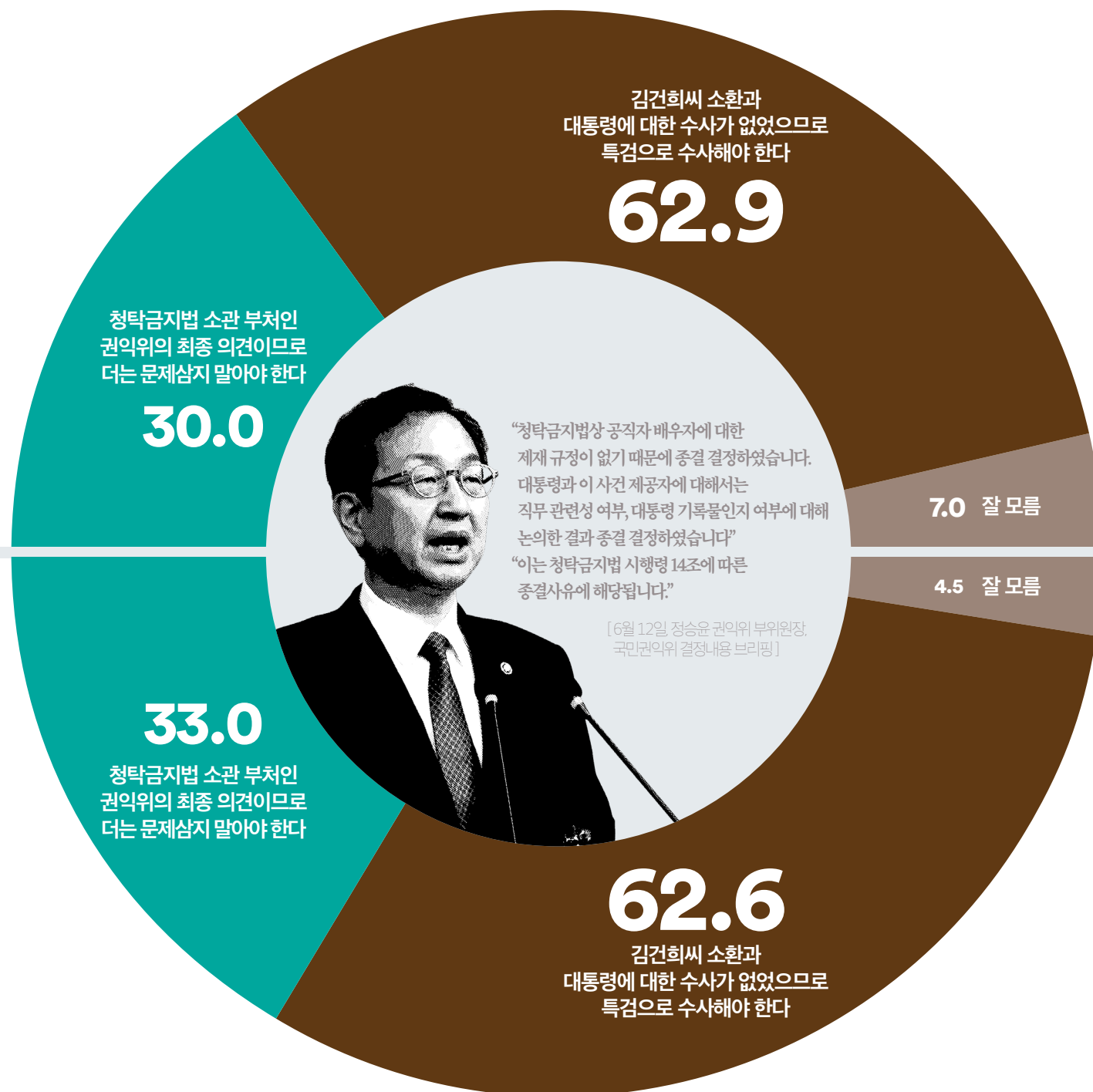
가동해야 한다 가동해서는 안된다 잘 모름



Q. 국민권익위는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다음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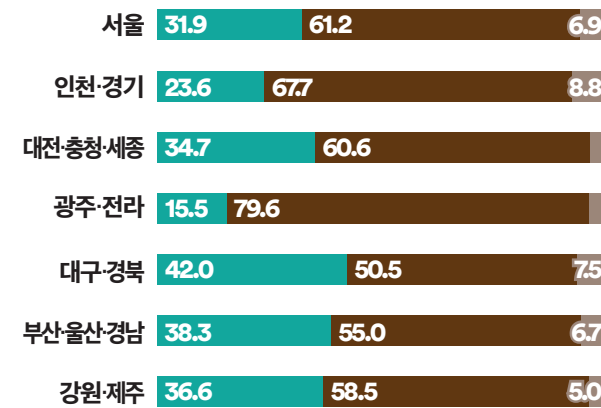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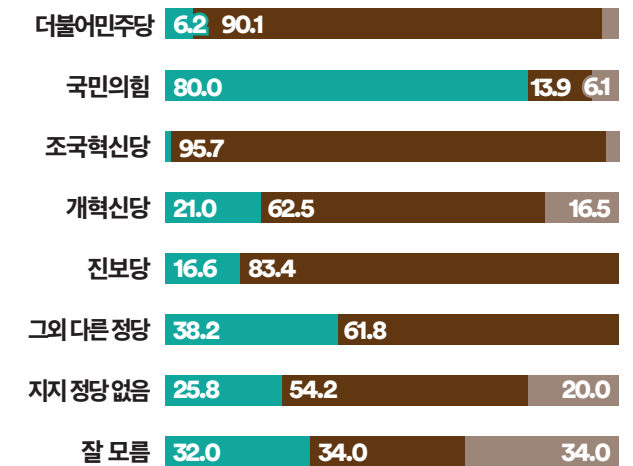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은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응답, 압도적 우세(응답 간 격차: CATI 32.9%p, ARS 29.6%p)
60대 이하 연령층, 진보층·중도층, 수도권·충청권·호남권·PK권에서는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
보수층 및 국민의힘 지지층, 70세 이상에서는 ‘더는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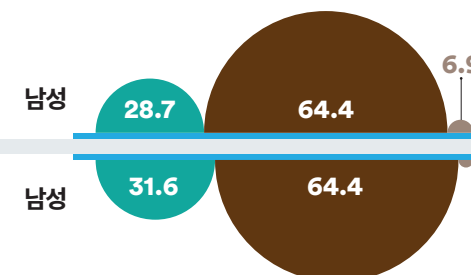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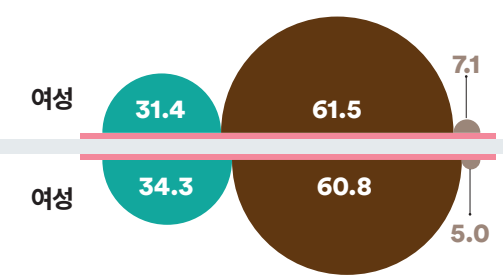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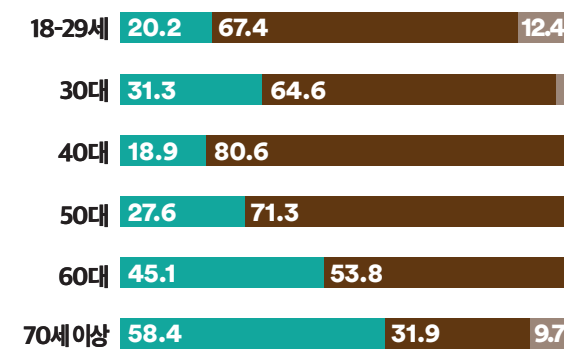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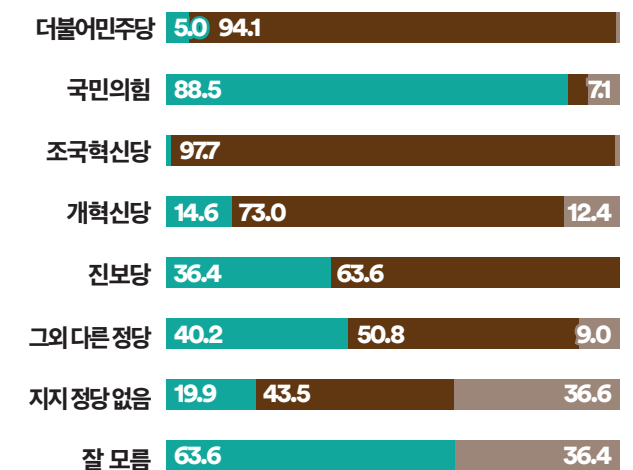
성별



연령



정당지지도



더는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 잘 모름



Q. 국회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의 위원장 선출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CATI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장께서 이제 결단 내려주셔야 한다”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길 거듭 요청한다”

[2024년 6월 1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발언]

국민의힘

“잘못된 원 구성에 전면 비협조한다. 원상복구를 시키라는 뜻.”
“이제 국민들 앞에서 협상을 해보자.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2024년 6월 14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의원총회 발언 갈무리]

국민의힘 몫으로
7명을 선출해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56.7

법사위원장을 얻지 못하면
의미 없으므로
장외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24.8

잘 모름

18.6

55.2

국민의힘 몫으로
7명을 선출해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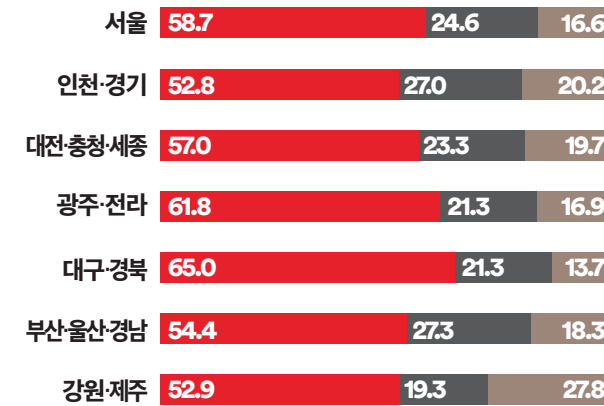
28.2

법사위원장을 얻지 못하면
의미 없으므로
장외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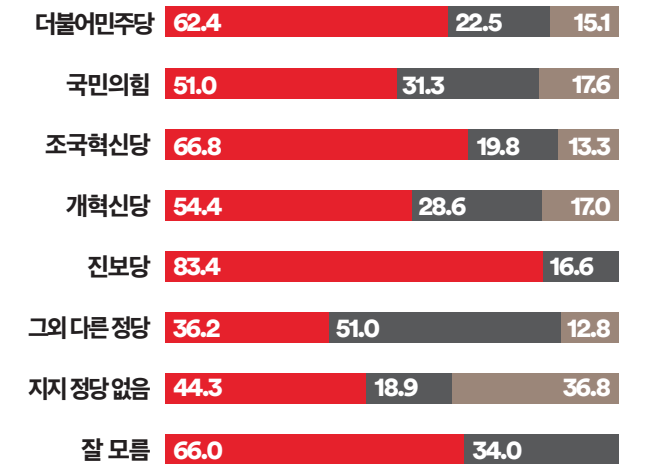
잘 모름

16.5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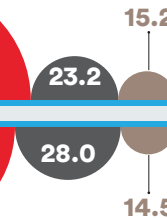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남성

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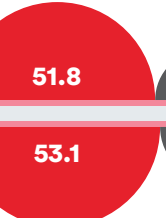


성별

남성

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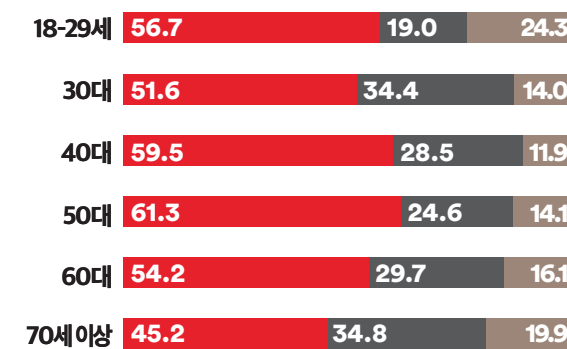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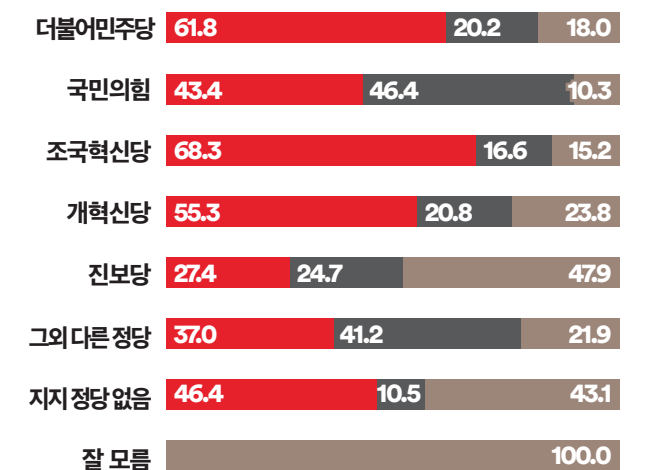
여성

53.1

연령



정당지지도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장외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잘 모름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두 조사의 응답자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 몫으로 7명을 선출해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31.9%p, ARS 27.0%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모든 연령 및 성별에서 ‘7명을 선출해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7명을 선출해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CATI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우세했고,
ARS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지지층에서 우세, 국민의힘은 오차범위내로 ‘장외투쟁’이 앞섬
CATI 조사의 모든 이념층, ARS 조사의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7명을 선출해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응답 우세

Q. 동해 석유탐사 분석 업체 액트지오의 법인세 체납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계약 당시 몰랐다고 사과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한 다음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

CATI



“정확히 다 확인을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석유공사에서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잘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지만, 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법인격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료의 전반적인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액트지오사에서도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인지하고 150불에 대한 체납된 세금을 완납했고, 저희가 2023년 2월에 계약을 했는데 2023년 3월에 그 나머지 부분을 다 완납을 해서 추가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석유공사-용역 대금으로 난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석유공사에서 액트지오에 대금을 준 시점이 2023년 5월입니다.”

[2024년 6월 10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동해 심해 석유 탐사 관련 기자 질의 답변 중]

세금 체납업체와 국가사업 체결은
잘못된 것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61.9

미국 세금 체납일 뿐,
한국과는 무관하므로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23.0

잘 모름

15.2

ARS

세금 체납업체와 국가사업 체결은
잘못된 것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60.6

미국 세금 체납일 뿐,
한국과는 무관하므로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22.8

잘 모름

16.6

법인세 체납 사실이 확인된 액트지오와 정부의 계약관계에 대해 물어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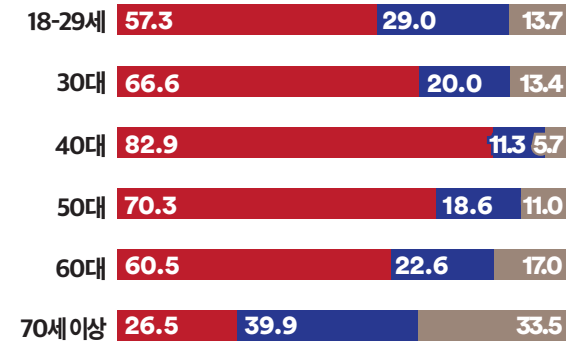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응답, 압도적 우세(응답간 격차 CATI 38.9%p, ARS 37.8%p)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 모든 성별에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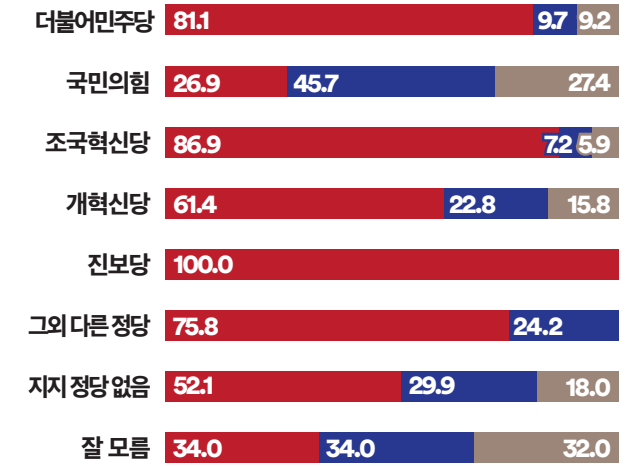
진보층·중도층 및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지지층은 모두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 및 보수층에서는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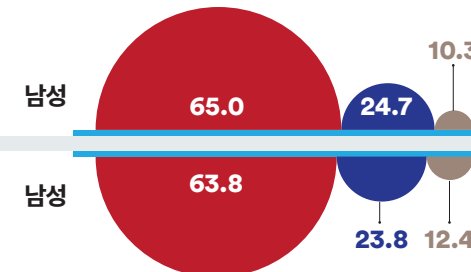
연령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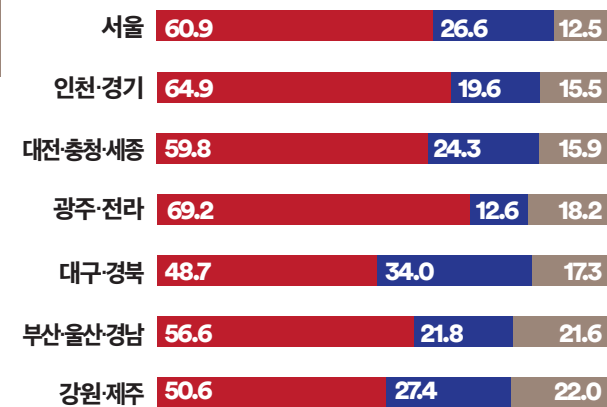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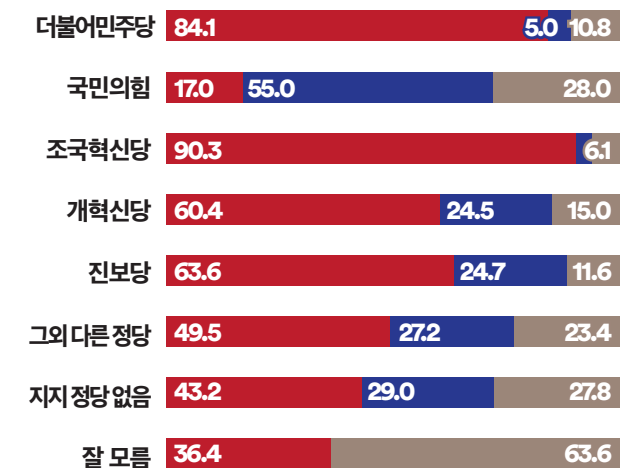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 잘 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406_03
